

2. 출제개요

가. 출제의도

올해 인문계열 모의 논술 고사는 지난 3년간의 출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통합 사회〉,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삶에서 직면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응용하게끔 함으로써, 논리적 분석, 비판적 평가, 창의적 응용 능력을 포괄하는 종합적 고차원적인 사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하나의 문제 사례를 두 가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와 제시문을 배치하고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폭과 깊이를 갖춘 종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점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고등학생 수준의 인문적 소양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례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 및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료들로 제시문을 구성하였다.

이번 논술 고사는 '공정과 정의'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응시자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정의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올바른 행위를 일컫는다. 여러 종류의 정의 중 무엇보다 부나 권력 등의 사회적 자원을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공정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동등하지 몫을 분배받거나 동등한 몫을 분배받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를 받는 지에 따라 공정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각자에게 어떻게 몫을 분배하여야 적당한 몫을 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회적 자원이 일부 집단에게 편중되어 사회 계층 양극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이다. 그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또한 공정하지 않은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과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에 처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는 문제들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학능력시험에 준하는 미국의 SAT라는 표준화된 시험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과 미국 로스쿨 입학에서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으로 인해 백인여성이 입학하지 못한 실제의 사례를 제시문 〈가〉에 소개된 롤스(Rawls)의 정의의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두 사례의 공정성에 대해 정당화하는 논술을 요구한다. 두 번째 문제는 기업에서의 여성임원할당제 및 공무원 시험 할당제 중 지방인재채용목표제라는 제도를 두 사례로 삼아 공정이라는 담론에서 크게 작동하는 두 가지 원리인 비례원리와 보편원리에 입각하여 공정성에 대해 판단해 보도록 하였다. 비례원리의 관점에서는 여성임원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엄격하게 비례하여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보편원리의 관점에서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공정한 제도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나. 제시문요약

제시문 〈가〉는 오늘날 정의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롤스(Rawls, J. 1921-2002)의 정의의 원칙과 이 원칙을 끌어내는 방법적 측면을 다룬 지문을 발췌하여 작성되었다. 특별한 권리를 일부 계층이나 조직, 개인에게 주는 것은 옳을까?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특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손해를 입을까? 특권은 특권에서 배제된 사람의 피해를 바탕으로 생기는 것은 아닐까? 특권을 부여하는 한 방법인 할당제는 이런 점에서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는 학자가 롤스이다. 롤스의 정의관은 고등학교 교과서 중 생활과 윤리(천재교과서, p. 97), 통합사회(지학사, p.181), 통합사회 (동아출판, p. 169) 등에서 빠짐없이 소개하는 개념이다. 제시문은 공정을 정의하기 전에 평등한 원초적 상태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그러한 원초적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두 개의 상이한 원칙인 (1)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원칙, 그리고 (2)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원칙이라는 두 상반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반부에서는 지문 <나>와 <다>의 내용과 연관된 주제이다. 수험생은 제시문을 통해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르는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약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SAT나 인종 및 국가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이 공정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는 롤스의 공정에 대한 정의를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외국의 사례들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나>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미국 표준 수학 능력 시험인 SAT가 사회경제적 능력과의 관계를 기술한 부분을 발췌·수정하다. 기회의 평등은 희소한 지위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상태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직위나 소득을 얻을 기회가 주어진다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배경과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차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주어진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경우, 그러한 차이는 자녀들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주어진 차이라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한국경제의 기사에서 기술한 부분을 발췌·수정하여, 수험생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두 원칙의 실제 적용 과정을 보충하여 기술한 것이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낸 세릴 흡우드는 성적이 우수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학교 정책으로 인해 입학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백인이어서 입학이 거절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물질적 재화나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이란 정당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유리 천장과 같은 성차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각종 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 정의에 입각한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소수자 우대 정책이 도입되기도 한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에서 혜택을 주는 사회 정책이다. 반면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제도나 정책이 도리어 상대방을 차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수자 우대 정책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역차별의 문제를 균형감있게 살펴보고,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시사지에서 다룬 공정에 대한 기사를 발췌·수정한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에 대한 담론에서 크게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예시와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비례 원리는 재능과 운의 불균등 분포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보편원리는 위험을 회피하고 고통에 민감한 인간의 성향을 강조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두 번째 문제에서 기업에서의 여성임원할당제 및 공무원 시험 할당제 중 지방인재채용목표제라는 제도를 두 사례로 삼아 이러한 정책들이 공정한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서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만큼 각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각각의 논지를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제시문 <라>에 기반한 두 번째 문제는 서울소재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임원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라는 겉보기에는 상반되어 보이는 우대 정책에 대해 보편원리와 비례원리 중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고 비판적인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다. 문항해설

<문제 1>

본 문제는 제시문 <가>에 소개된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제시문 <나>의 사례인 SAT 수험능력시험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술하고, 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인 적극적 우대조치의 공정성에 대해 정당화하는 논술을 요구한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상황과 그 취지 및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정의의 원칙을 개별 사례에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수험생들은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의

의 원칙에 부합하는 근거들을 통해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가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 표현력을 통해서 응시자의 이해력,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의의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가>에 나타난 정의의 제 1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 2원칙은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복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직과 지위에 결부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의 두 원칙에 부합될 때 비로소 그 제도나 사회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을 제시문 <나>의 사례에 적용하여 <나> 사례를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사례에서는 수험생의 가정 형편과 시험 점수가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롤스의 입장에서 학생의 가정형편 내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요인은 우연성을 지닌 요인들이다. 정의의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때 공정한 절차와 순수 절차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관점이다. 이러한 순수 절차적 정의는 사람들의 갈등과 반목을 증대시키는 특정한 우연의 결과를 무효화시켜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연적 여건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유리함이 증가할수록 SAT 평균점수도 올라간다.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제도는 가장 불리한 여건의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인 이익을 보장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롤스의 관점에서 보면 SAT 시험에 사회경제적 형편이 불리한 학생들을 위한 부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 그 시험은 공정함을 획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정의로운 제도라고 평가하기도 힘들다.

셋째,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을 제시문 <다>의 사례에 적용하여 <다> 사례를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논술할 수 있어야 한다. 롤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의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롤스의 관점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제시문 <다>의 사례와 같이 흑인에 대한 소수자 우대 정책을 실시해 대입에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롤스의 입장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공정한 절차와 취지를 지닌 제도로서, 최소수혜자에게 우선적인 이익이 가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 2〉

본 문제는 제시문 <라>에 제시된 '비례원리'와 '보편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중 하나의 원리를 채택하여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논술할 것을 요구한다. 두 제도에 비례원리를 적용한다면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엄격하게 비례하여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보편원리를 적용한다면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불공정의 요소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정의로움에 부합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라>의 원리를 채택하여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를 평가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도 본 문항에서 수험생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다. 우리학교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여성인 동시에 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여성할당제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공무원 시험 할당제 중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일관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은 논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비례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모두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편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모두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논리적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답안 구성의 체계성과 내용의 완결성 및 문장력, 표현력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시문 <라>에 기술된 ‘비례원리’와 ‘보편원리’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 원리에 의하면, 각자가 노력하여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보편 원리에 의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처럼 비례 원리와 보편 원리는 공정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어느 잣대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공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비례원리는 재능과 운의 불균등 분포라는 구조적 조건에 대체로 눈을 감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편원리는 그러한 우연적 요소가 불평등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제도는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일차적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서 우연성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하나의 관점을 타당하게 적용하여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정의로운 여부를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례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온전하게 반영한 제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보편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정당화하는 관점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원리를 채택한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여성과 지방대 학생들에게 일차적인 이익을 보장하므로 인간 권리의 보편적 신장과 평등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셋째,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관점으로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두 제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신여대 재학생은 여성인 동시에 수도권 대학 재학생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기에 여성할당제는 우리학교를 지망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대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는 정책이므로 우리학교를 지망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논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논지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일관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이는 논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비례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모두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편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모두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논리적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

3. 평가기준

문항	배점	세 부 내 용
문제1	5	• 정의에 관한 제시문 <가>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20	•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제시문 <나> 사례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가?
	20	•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제시문 <다> 사례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 논술했는가?
문제2	5	• 제시문 <라>에 기술된 비례원리와 보편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는가?
	20	•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하나의 관점을 타당하게 적용하여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를 평가하고 있는가?
	20	•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관점으로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5	•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사용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량을 지켜 논술했는가?

<문제 1>

1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정의에 관한 제시문 <가>의 관점 파악하기
- 둘째,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 사례 평가하기
- 셋째,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 사례 평가하기

첫째 부분

- 제시문 <가>에 제시된 정의의 원칙과 그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점검한다.
- 정의에 관한 롤스의 입장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정의롭게 운영하기 위해 합의할 원칙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시문 <가>에 나타난 정의의 제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부분

-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사례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타당한 근거를 들면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제시문 <나>에 제시된 SAT와 같은 수학능력시험은 학생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정형편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외적인 배경이나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험 제도의 공정함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분

-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사례가 정의에 부합하다는 점을 타당한 근거를 들면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제시문 <다>에 제시된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약자들을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치가 일부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차등의 원칙에 부합하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함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 2〉

2번 문제의 답안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첫째, 제시문 <라>에 기술된 ‘비례원리’와 ‘보편원리’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리하기
- 둘째,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하나의 관점을 타당하게 적용하여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의 정의로운 여부를 합당하게 평가하기
- 셋째,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관점으로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두 제도를 평가하기

첫째 부분

- 제시문 <라>에 기술된 ‘비례원리’와 ‘보편원리’의 특징과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비례원리는 개개인이 노력하여 기여한 것에 비례하여 분배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편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대조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둘째 부분

- 제시문 <라>에서 채택한 하나의 관점을 타당하게 적용하여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의 정의로운 여부를 합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비례원리를 적용한다면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엄격하게 비례하여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로 평가될 수 있다.
- 보편원리를 적용한다면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불공정의 요소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정의로운에 부합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분

- 제시문 <라>의 원리를 채택하여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를 평가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비례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 모두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편원리를 채택했다면 여성할당제와 공무원할당제 모두 옹호하는 입장에서 논술이 이루어져야 논리적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다.